

# '젊은 도시'서 '인구소멸 위험도시'로...빛가람혁신도시 역성장

### 혁신도시 조성 11년 '상생지수 평가 및 인증 제도 구성 관련 토론회' 인구 3만9천명대...정주여건 개선·산학연 클러스터 등 협력체계 절실

빛가람혁신도시가 애초 조성 목적대로 성장하려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협력체계가 절실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구 5만 목표 달성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는 것이다.

8일 혁신도시정책연구원(연구원),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 등은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빛가람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발표'와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및 인증 제도 구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조성 11년째를 맞은 혁신도시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진상 동신대 명예 교수는 "혁신도시 1차 이전 성과와 과제" 발표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지만, 올해 초 1000여명 넘게 감소하면서 3만 9000명대로 역성장했다"면서 "도시 조성 이후 '젊은 도시'로 꼽혔던 빛가람혁신도시의 아동 비중이 줄어들어 현재 '인구소멸위험도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수는 "나주시의 지방세 역시 평균 성장률이 기존 3~4%였으나, 빛가람혁신도시 입지 효과로 57%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매년 초과분의 23% 가량은 빛가람혁신도시 유치 효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조성 당시 내세웠던 인구 5만명 달성 등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로는 정주여건 부족을

꼽았다.

조 교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는 인구 3만 9000여명, 면적 7.30㎢로 나주 원도심 6개 동지역(성북·금남·송월·영강·영산·이장)의 합산 인구 3만명 및 면적 6.23㎢보다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주여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4개와 3개로 원도심보다 1개씩 적었고, 고등학교는 원도심 대비 4개 적은 2개에 불과했다. 문화시설은 CGV극장, 도서관 2개로 원도심(6개보다) 현저히 적었고, 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터미널 등 교통시설은 전무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제도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비교도 이어졌다. 세종시는 지방분권을 위해 지난 2006년 본격 추진돼, 2012년 출범했다.

양 도시 모두 지방 분권을 위해 조성됐고 공공기관 등이 이전했지만, 혁신도시의 총 정부 예산지원은 7988억원에 불과한 반면 세종시 정부 예산지원은 혁신도시의 6.3배에 달하는 5조 708억원으로 집계됐다.

조 교수는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대규모 투자 등 지원을 실시하지만, 혁신도시시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이전 비용 및 일부 기반시설 지원만 이뤄지기 때문에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재영 연구원 부원장은 이어 "혁신도시 정책 연구원 소개 및 과제" 주제에서 "국가교통부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8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정책연구원, 광주경실련, 광주시 관계자 및 이재태 전남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및 인증 체계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자체와 이전 기관, 지역 주민 등의 상생협력 요소에 대한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은 지역이 얼마나 상생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이전 기관들의 역량 유지 방안 마련,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는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장기 연구원 부원장은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및 인증제도 구성(안)을 발표에서 "해당 구성안의 핵심 주체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들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클러스터 조성, 정주 여건 조성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지역 물품 구매, 기관 개방을 넘어 지역 상생 및 협력 등을 통

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 촉진을 위해 구성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및 인증제도 구성 관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장 부원장을 좌장으로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김장기 연구원 부원장,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강승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사무이사가 참여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전국 149개 대학 입시정보 한눈에

### '광주진로진학박람회' 18~19일 DJ센터...진학관련 특강도

전국 대학의 입시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2025 광주진로진학박람회'가 오는 18~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수도권 주요 대학을 포함해 전국 149개 대학이 참여해 급변하는 입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심층 입시정보를 제공한다.

각 대학 입학 사정관이 198개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고3 학생들의 대입과 고1·2 입시 대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광주진로진학지원단 소속 대입상담교사 70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고3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도 한다.

진학 관련 특강도 운영된다.

18일에는 고3 학생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대비 특강, 고2·3 학생을 위한 2026~2027 대입전형 특강, 무전공·첨단학과 계약학과 분석 특강이 이뤄진다. 19일에는 고1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8 개편 달라진 대입제도 특

강, 진로 맞춤형 설명회로 예체능계열 음악 특강, 미술 특강, 체육 특강 등도 마련됐다.

서울권·광주권 공동 대입 설명회, 최근 의대 정원 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높은 의·치·약계열 설명회, 고3 학생·대학입학사정관·교과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 대학별 입시설명회도 열린다.

1대1 수시 대입 상담, 대학별 입시설명회, 주제별 특강 등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광주진로진학박람회 누리집(www.jinhakexpo.or.kr)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8일 "지난해보다 참여대학이 18곳 늘었다"며 "광주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구체적인 진학 로드맵을 수립해 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美 "車·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엔 상호관세 부과안해"

### 백악관, 상호관세 8월1일까지 유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8일(현지 시간)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유예 만료 시점(8월)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과 관세율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3주 이상 더 확보하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각국에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이 앞으로 한달 안에 각국 정상에게 발송될 것

이라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만 특별히 먼저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를 트위터·소셜 본인 계정에 거의 동시에 업로드 올렸

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양국 모두 25%)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을 공개한지 1시간 이상 경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의 정상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도 잇달아 SNS에 올렸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각국별로 차등 책정된 상호관세가 8월 1일부터 부과되더라도, 그것이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각 50%)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율 위에 더해지는 않는다고 확인했다.

/연합뉴스

## 김현성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내정자 돌연 사의...건강상 이유

김현성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내정자가 돌연 사의를 표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 대표는 이날 대표직과 문화경제부시장 내정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사의의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역 현안을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조속히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채권신고공고(1차)

본 법인은 2025년 5월 19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서기 2025년 8월 9일까지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리는 바입니다.

2025년 7월 9일  
산이축산인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해남군산이면산리로 529  
청산인 이병규

**회사 합병 및 주권 제출 공고**

농림수산식품업체인 영남농업(주)와 농림수산식품업체인 한성농업(주)은 2025년 7월 9일 제1차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이후 영남농업(주)가 합병대상인 한성농업(주)의 주권을 인수할 것을 합의하였다. 합병대상인 한성농업(주)의 주권은 해산되고, 합병대상인 영남농업(주)의 주권은 존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공고한다. 이에 따라 영남농업(주)은 2025년 8월 9일(수)까지 영남농업(주)의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남농업(주)의 주권은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병대상인 영남농업(주)의 주권: 2025년 8월 9일
2. 합병대상인 한성농업(주)의 주권: 2025년 8월 9일
3. 제출기간: 2025년 8월 9일
4. 제출처: 영남농업(주) 본사(주주) 또는 본사의 소재지 (주주명: 020-727-799)
5. 합병대상인 영남농업(주)의 주권: 영남농업(주) 본사(주주) 또는 본사의 소재지(주주명: 020-727-799)
6. 합병대상인 한성농업(주)의 주권: 영남농업(주) 본사(주주) 또는 본사의 소재지(주주명: 020-727-799)

영남농업(주) 본사(주주) 또는 본사의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산이면산리로 529  
영남농업(주) 본사(주주) 또는 본사의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산이면산리로 529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지(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고급 전원주택 매매 (평당 위치)**

전남 담양 수북 쪽재골길

대지 704py, 주택 60p  
카페부속건물 20p, 태양 6킬로  
최고급 독립 건축재로, 경치 최고.

**금 매**  
매 16억 9천, 은행 11억,  
인수가 5억 9천

**010-3646-8700**

73년을 밝히는 요람년문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

북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222-8171
	• 영 571-7653	• 오 265-7801
	• 동 433-1503	• 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2-0001	• 중 명 222-9054
	• 중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651-1833
	• 북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심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동 명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진구	• 온 천 952-1687	• 월 곡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선 944-0444	